

건강 칼럼

갑자기 생긴 목 멍울, 두경부 종양의 가능성 높아

갑자기 목에 멍울이 만져진다는 이유로, 또는 침을 삼킬 때 이물감이 든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혹시 암이 아닐까 의심하며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나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경부 종물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한데 대부분 경부 림프절 비대인 경우가 많고 종양으로는 갑상선 결절, 침샘 종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부 림프절 비대는 목에 있는 림프절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멍울을 말한다.

목의 측면에는 림프절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조직이라 하더라도 사팔에 따라, 잘 만져질 수 있으며 경부 림프절 비대라 하더라도 단순히 림프절이 커진 것부터 림프절염이나 림프절 종양 등 여러 사유로 인한 경우도 있어 검사를 진행해 보아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다.

갑상선 결절은 목의 앞부분에

생긴다. 이 경우에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 양성 결절인지 악성 결절인지 구분하고 추가로 세침흡인 세포 검사를 진행하여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갑상선 결절은 크기가 작을 때에는 촉지가 되지 않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개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암이 진단되더라도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좋기 때문에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로 조기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침샘 종양은 침샘의 위치에 따라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 종양

및 소타액선 종양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선 종양의 경우 80-90%가 양성이지만 악하선을 비롯한 다른 침샘에 생긴 종양은 암 발생률이 다소 높다. 또한 오래 방치했을 경우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진단 시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선의 경우 안면신경이 침샘 안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수술 후 얼굴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밖에도 세월낭종이나 갑상선관 낭종, 신경조종, 지방종, 림프관종, 유괴낭종 등 다양한

두경부종양이 있다. 또한 40대 이전에는 단순 림프절 비대나 선천성 종양일 가능성이 높으나 40세 이후에는 특정 종양으로 인한 멍울이 생길 위험이 크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두경부종양은 대부분 양성이며 성장 속도가 비교적 느린 편이기 때문에 간단한 절제술로 완치될 수 있다.

다만 악성종양의 경우에는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생명을 위협하게 되고 설령 완치하더라도, 구강 등 주요 부위에 기능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목이나 턱, 귀밑 등의 부위에 멍울이 생겨 한 달이 넘도록 쪼렷처럼 사라지지 않으며 멍울이 크기가 크고 조직에 고정되어 있어 움직이지 않을 경우, 딱딱하고 통증이 없는 경우라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 결절의 유무 여부를 확인한 후 조직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필요하다면 CT, MRI 같은 영상검사로 진행하게 된다.



천 병준

명륜서울의원 이비인후과 원장

사설

동네한바퀴 '완주 딸의 밥상'

최근 KBS1 '동네 한 바퀴' 217회에 '완주 딸의 밥상'이 나왔다. 식당은 완주군 봉동읍 완주로441-16에 있다. 진행자 이만기는 불꽃이 한껏 오른 시골길을 걷는다.

복슬겉이 반겨주는 한 가게에서 제철을 맞은 완주 딸기로 딸기 고추장을 담고 있는 95세 친정어머니와 딸 김충경 씨를 만난다. 모녀는 화사한 홀드레스를 입고 이만기를 반겼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예쁘고 화사한 것을 좋아하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취향을 닮은 딸은 평소에도 홀드레스를 즐겨 입는다. 김충경 씨는 어머니의 소녀 감성뿐만 아니라 손맛까지 닮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어릴 적, 5남매 중 가장 몸이 허약했던 김충경 씨를 위해 어머니는 딸이 학교에서 올 때쯤이면 닭을 삶아서 기다렸다. 어머니의 밥상 덕에 지금은 넘치게 건강하다. 김충경씨는 어

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떠올리며, 30년 전부터 자신만의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기본 12첩이다.

김충경 씨에게 밥상은 모든 약기가 조화를 이뤄야 하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다. 그중에서도 된장 양념에 숙성한 맥적구이는 달콤하면서 짭조름한 맛이 일품이다.

딸기 고추장으로 무친 흥어회 무침은 매콤 달콤해 입맛을 돋운다.

김충경 씨가 식당을 열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어머니를 위해서다. 이만때면 시금치 대신 미나리로 김밥을 싸듯, 제철에 나는 제일 좋은 재료로 자식들에게 해 먹었던 어머니처럼 되고 싶다.

이젠 고령이 된 어머니에게 맛있는 밥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다. 어머니에게 몇 번의 봄이 더 오길 바라며, 어머니의 사랑으로 배운 딸의 밥상을 맛본다. 엄마가 그랬듯 딸의 밥상 맥적구이 한상 은 인기 만점이다.

전주권 광역소각장 쓰레기 문제

전주권 광역소각장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전주소각장에 불량 쓰레기 무차별 반입으로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전주권 소각장의 최근 3년간의 성장조사에서 드러났다.

발암 물질과 대기질 오염 등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없는 쇠붙이와 고무 등이 반입되어 적발되기도 했다. 불량 혼합 쓰레기가 무차별 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권 광역폐기물 소각장은 잦은 고장으로 현재까지 낭비되고 있다. 비정상적인 소각로 열 발생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 삼산마을은 물론, 주변 지역 주민들까지 악취와 비산먼지, 발암 물질 위험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권 광역소각장은 2026년 9월 20년 협약 기간이 만료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소각장 내구연도마저 단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플라즈마 소각장 추진 등으로 새 소각장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2년간 연장 협약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협의체가 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주권 광역소각장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전북 도내에서 가장 광활한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소각장이다. 전주시는 먼저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종량제 봉투에 반드시 소각용 쓰레기만을 담아 반입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3월 9일 새로운 소각장 입지 선정 공고를 했다. 신청 마감은 오는 5월 8일이다. 일정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2026년 10월에 완공된다는 보장이 없다. 전주시의 쓰레기 감독과 대책이 시급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워싱턴 겨냥' 모의 미사일 장착한 러시아 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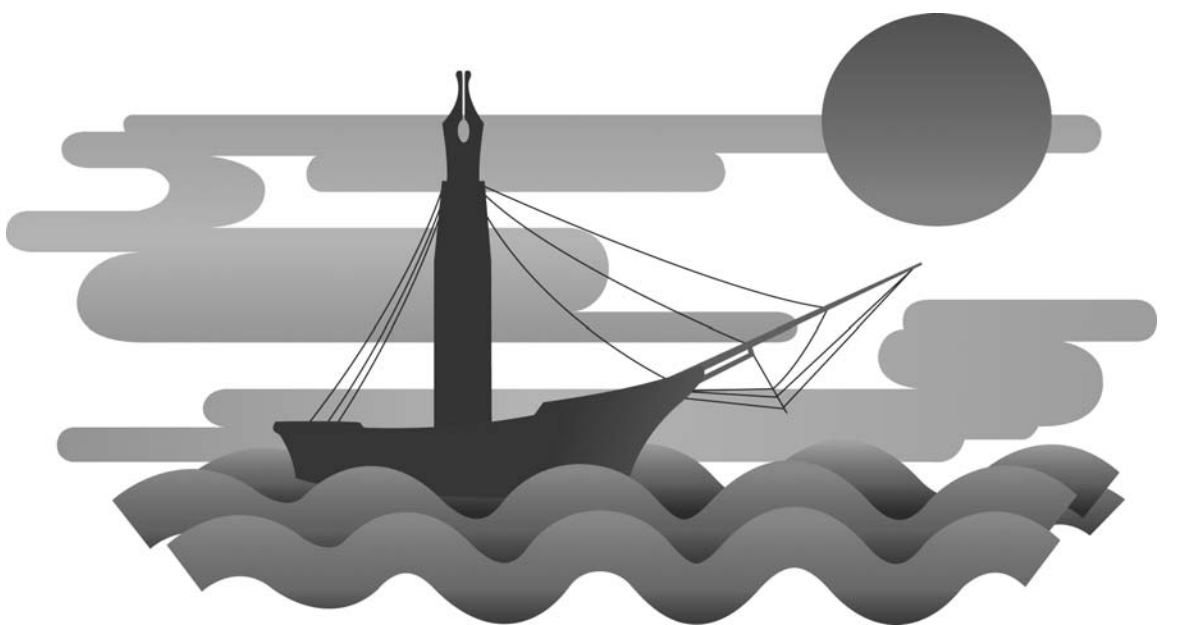
4월 29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워싱턴을 겨냥하자"라고 쓰인 러시아산 모의 미사일을 장착한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나폴리 비기자 아쉬워하는 팬들



4월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나폴리 축구팬들이 나폴리의 세리에A 우승이 불발되자 아쉬워하고 있다. 나폴리는 이날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경기장에서 열린 2022~23 세리에 A 축구 32라운드 셀레르니타나와 1-1로 비겨 33년 만의 우승을 뒤로 미루게 됐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